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천덕희 사회복지사

후배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

1 칭찬릴레이 사회복지사로 선정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를 칭찬하는 이런 코너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보다 힘든 곳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선정된 것이 마땅한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칭찬 받을 일을 많이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추천해 주신 박귀서 선생님과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하듯이 기본적인 사회사업 가치와 원리를 적용하며 그 대상은

정신과 환자와 그 가족이 되며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개별, 집단, 가족, 지역사회자원 연결 등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과 치료 팀이 되어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가 되어 함께 팀 일을 합니다. 제가 다루는 영역은 모든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입을 하며 알코올중독과 노인성 치매는 저의 주된 관심 분야로 좀 더 전문적인 개입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학부 1학년 전공 선택으로 정신위생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배우며, 발달과정 상의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며 힘들어 하던 내게도 정신과적 증상들이 약간씩은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과 환자들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 하는 의구심으로 실습을 국립정신병원으로 나가면서부터 나의 전공은 정해졌고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

서 지속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최신 의료장비와 치료프로그램, 진료, 교육, 기능을 갖추고 가정같이 안락한 환경 친화적인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 대한 홈페이지의 소개를 보았습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많이 있던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저희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연세의료원이 추구하는 진료, 연구, 교육을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대학병원 단독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서비스가 있는데, 외래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증상 관찰 및 상태 호전을 요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특정한 치료전략으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병동은 General, Privilege, Abstinence, Geriatric Unit으로 일반 정신질환 병동, 배려를 통한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병동, 단주를 위한 병동, 노인병동으로 환자마다 개개인의 특성과 증상별로 나뉘어진 치료 병동에서 입원치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병동마다 특화된 다양한 치료과정(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조)을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계획 과정을 통하여 외래치로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4 정신보건 사업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일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와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병원 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치료팀 내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에게도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비해 미미한 의료수가로 수입측면에서 평가절하 되기도 하는데 업무의 의료수가화가 되지 않고, 사회사업이 질적 서비스다보니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있어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치료적인 개입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측면에서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이 요구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자리합니다.

일 하면서의 보람은 늘 환자의 치료와 맞물립니다.

아직까지 10년째 단주하며 내 이름을 천여우에서 아름다운 여인, 두 번 살게 해준 은인이라며 이름을 바꿔주고 드높여주고 계신 A.A 멤버 송선생님, 정신분열증으로 힘들었던 환자에게 team approach를 실시하고 이후 follow-up 까지 잘 되어 93년 이후 아직까지 재발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잘 지내는 첫 발병으로 끝나도록 도움주어 고맙다며 점심 먹자고 찾아주는 은주...환자의 퇴원 당시에는 고마움도 예후도 잘 모른 채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외래를 지속적으로 다니며 만나는 그들이 내겐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5 앞으로 정신보건현장과 개인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 연구, 교육의 삼위일체를 추구하는 연세의료원의 직원으로서 내게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교육, 즉 후배양성입니다. 정신과에서 본원은 다학제간 팀웍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실습을, 1997년 이후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 수련을 원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신보건사회복



지사 1급 수퍼바이저로서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고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 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정신과 병동에 와서 위축되고 무식한 스스로 때문에 힘들고 팀웍에 있어서 정말 기본이 안되어서 힘들어하는 수련 사회복지사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 늘 한쪽 마음에 자리하는 답답함을 누가 내게 시원하게 의학용어를 설명해주고 신체적인 질환들과 정신적인 질환들, 약리작용들, 임상 노하우등을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들과 목마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수련사회복지사들을 맞이하면서 부족하게 만든 세브란스정신건강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수련 매뉴얼

(개정 3판)을 앞으로 더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탄탄한 작업을 통하여 후배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정신과 내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하는데 보탬이 되는 안내서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6 다음 칭찬 사회복지사를 추천해 주세요.

다음 칭찬사회복지사는 윤동인 성북노인복지관 부장님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하시는 등 모범적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